

先史時代

農耕文青銅器에 대하여

韓炳三

近來에 와서 青銅器 一括遺物의 發見例가 현저하게 많아져서 우리나라 青銅器文化 研究에 貴重한 資料를 제공해주었으며, 그中에서도 大田市槐亭洞과 全南和順에서 出土된 一括遺物은 學界에 많은 問題를 던져준 바 있다.

여기에 紹介코자 하는 農耕文青銅器(第一—三圖)는 一九七〇年末 大田의 한 商人이 古鐵蒐集人으로부터 購入한 것인데, 이것이 다시 서울의 商人손을 거쳐 國立博物館에 收藏케 된 것이다. 그러니까 正確한 出土狀況은 물론이려니와 出土地조차 不明하고 단지 大田에서 出土되었다고만 傳할 뿐이다.

이 青銅器의 形態는 槐亭洞에서 出土된 用途不明의 青銅器中的 하나인 防牌形青銅器(第四圖)란 것과 똑 같다. 나, 下半이 缺失되었고 그나마 現存하는 上半部도 돌로 切斷된 것이다. 그리고 當初 博物館에서 購入할 때는 全面에 녹이 붙어서 全體 文樣은 보이지 않고 周緣의 幾何學的 文樣만이 약간 보였을 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槐亭洞의 防牌形銅器와 똑같은 新資料가 또하나 追加되었다는 정도로 가볍게 보아 넘겼었다.

그러나 表面의 녹을 除去하면서부터 거기에 展開된 文樣을 보고는

실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前·後兩面에는 나무가지에 올라 앉은 새와 農耕을 하고 있는 場面이 너무나 寫實的으로 陰刻되어 있었고, 周緣의 幾何學 文樣帶도 섬세하기 이를 데 없었다. 또한 鑄造方法에 있어서도 槐亭洞의 劍把形銅器보다도 卓越해 보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先史時代 青銅器中에 幾何學文이 아닌 것으로서 唯一하게 알려져 있는 것은 小倉武之助가 所藏하고 있는 狩獵文肩帶뿐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人物은 없고 단지 動物만이 있을 뿐인데 그나마 動物의 表現이 매우 유치하다. 그런데 이 農耕文青銅器의 人物이나 새의 文樣이 너무나 寫實的으로 描寫되었다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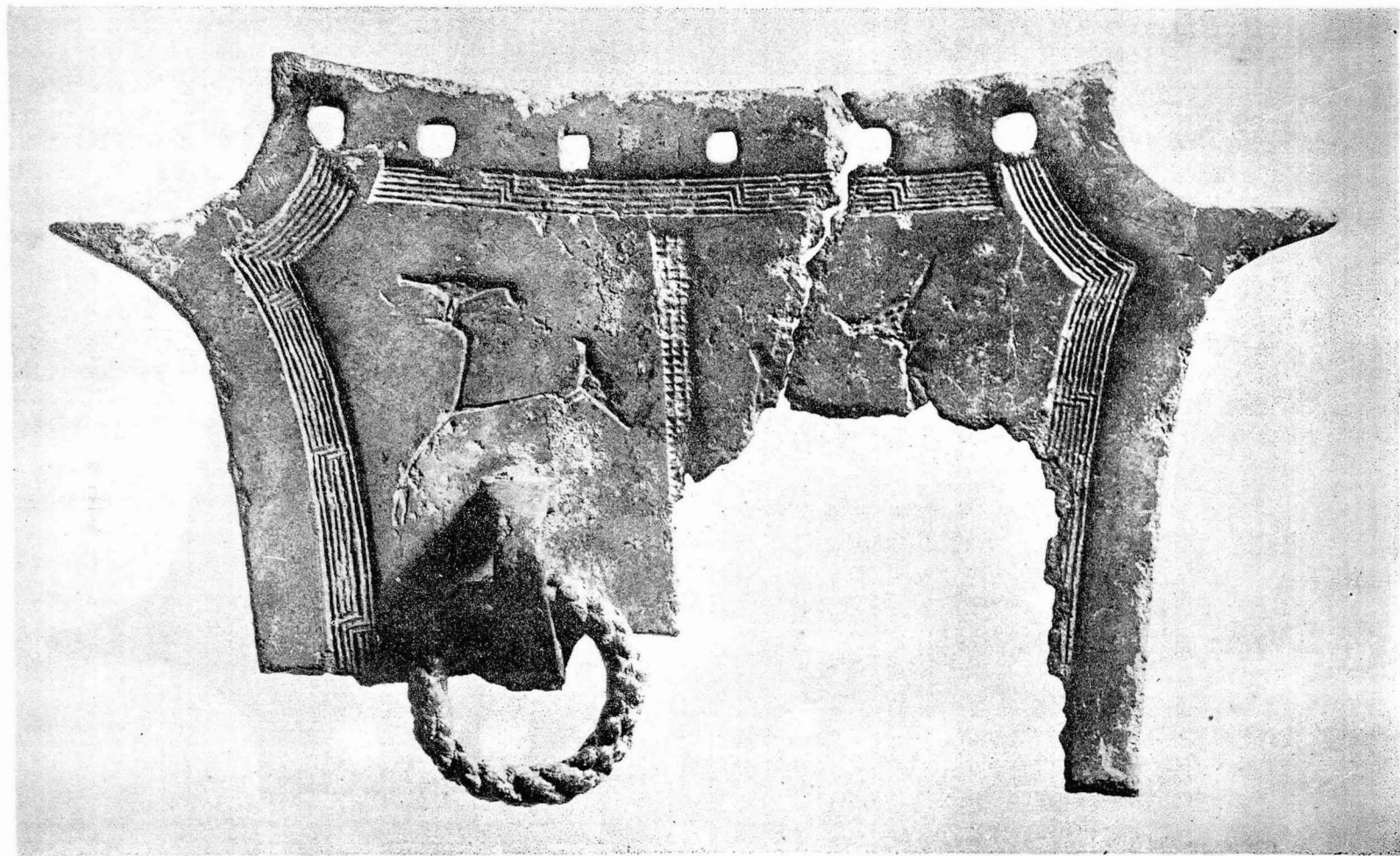
筆者는 이 文樣들을 자세히 관찰해 본 결과 이것이 단순한 裝飾的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매우 重要한 意味가 內包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文樣들을 通해서 斷片的이나 當時 社會相의 一面을 究明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青銅器의 時代는 槐亭洞의 防牌形銅器가 細形銅劍과 伴出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細形銅劍이 盛行하던 때라고 본다.

먼저 青銅器 自體에 대해서 說明한 다음 文樣에 대해서 檢討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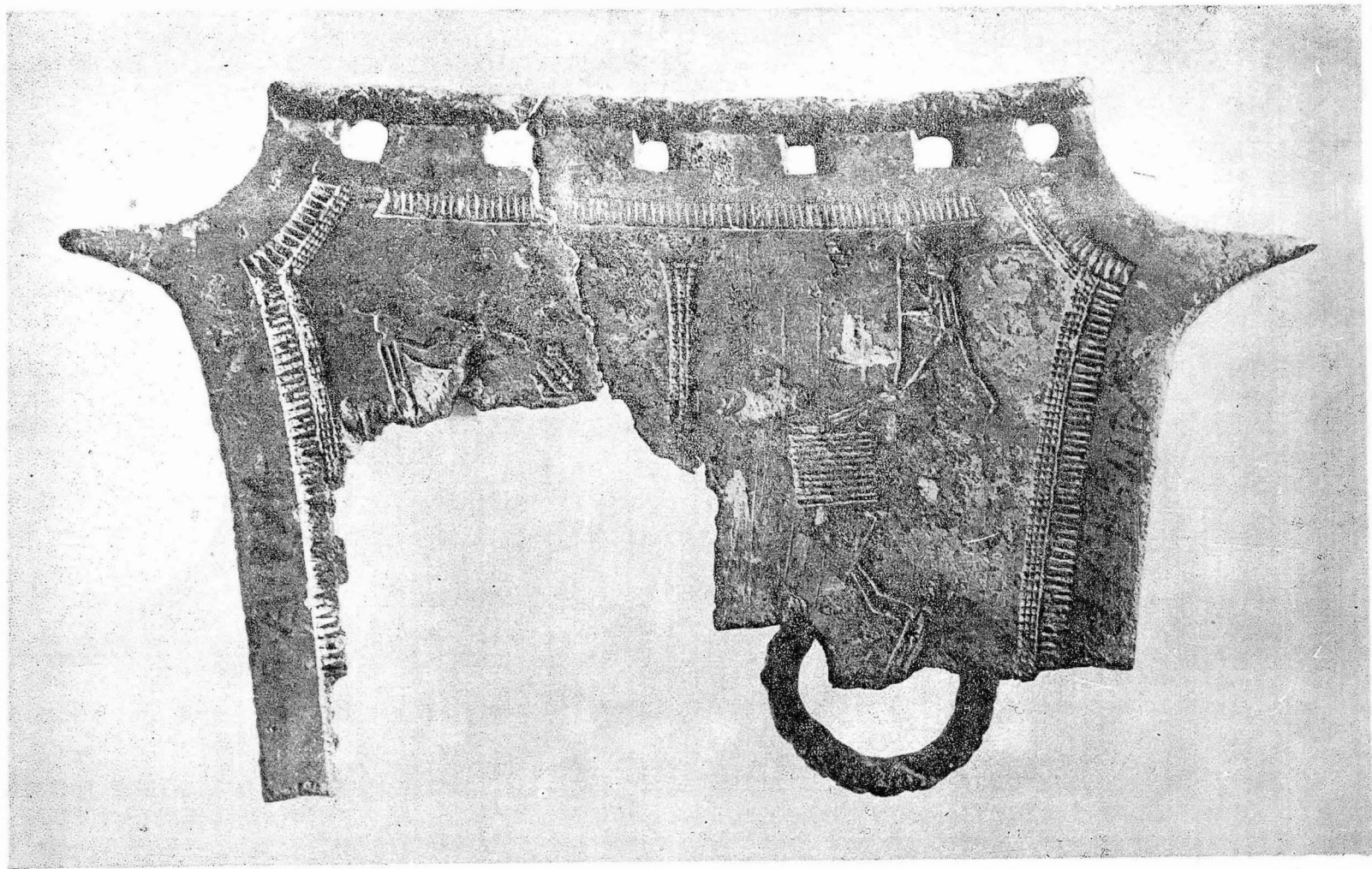
二

農耕文青銅器의 現存하는 길이는 一一·八cm, 폭은 七·三cm 그리고 두께는 一·五mm인데 前後兩面을 곱게 磨研하였고 製作手法도 아주 精巧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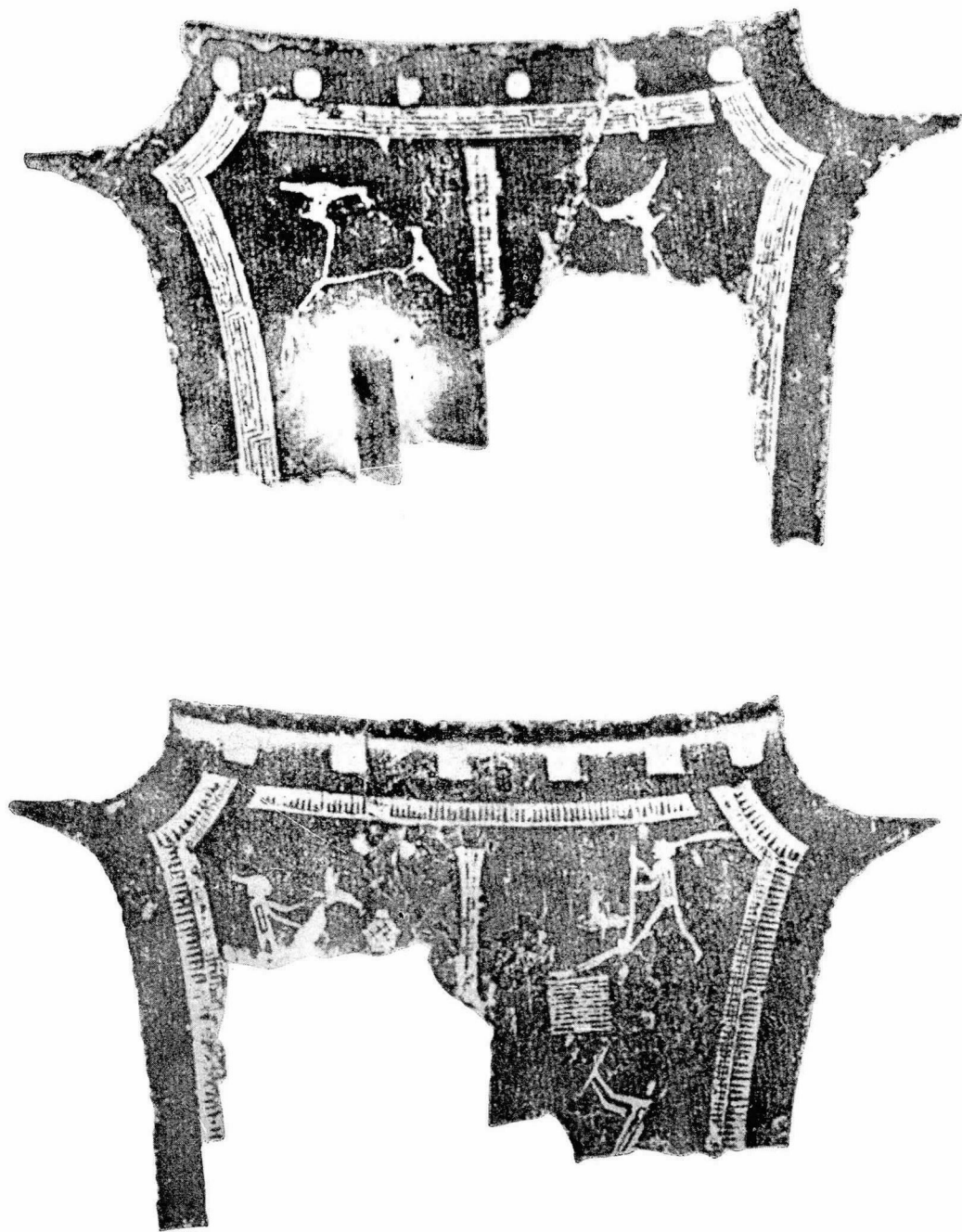
前述한 바와 같이 形態는 槐亭洞에서 出土된 防牌形銅器와 같으나 上部의 左右 突出部가 더 길고 뾰족하다. 上緣에는 六個의 方形孔이 있는데 兩가에 있는 두 개의 구멍은 많이 닳은 것으로 보아 內部의 구멍은 별로 利用하지 않고, 兩端에 있는 두 구멍에 끈을 묶어서 매어 달았던 것 같다. 그리고 槐亭洞의 防牌形 青銅器와 같이 後面쪽으로 약간 배가 나왔으며, 全面에 엷은 靑綠色을 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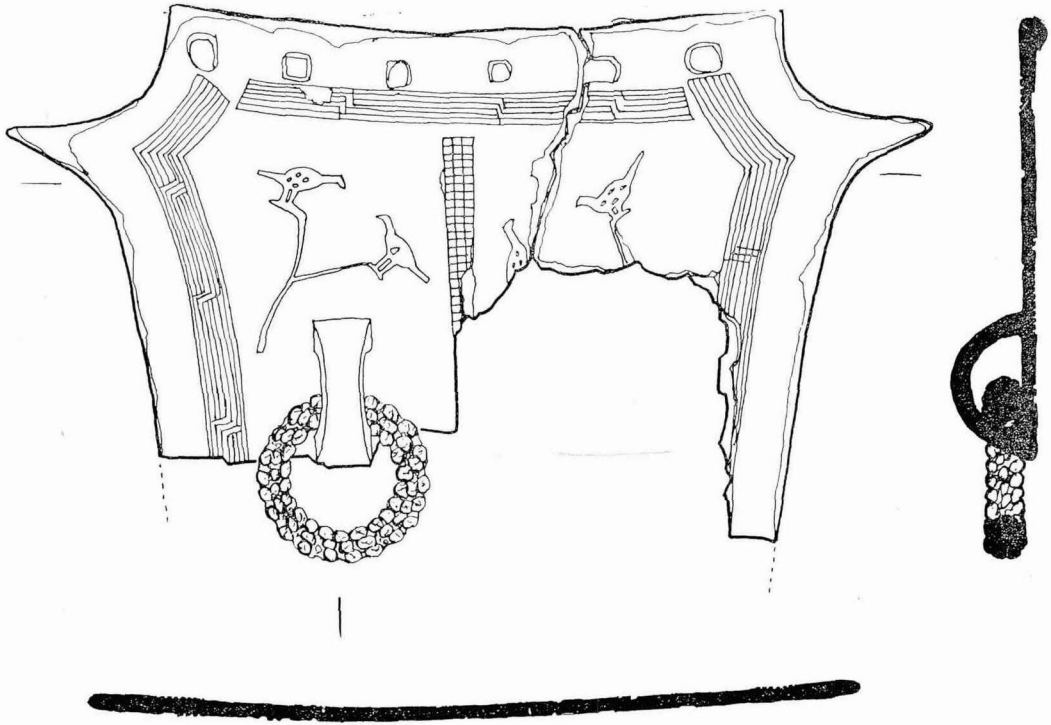
第一圖① 農耕文青銅器 前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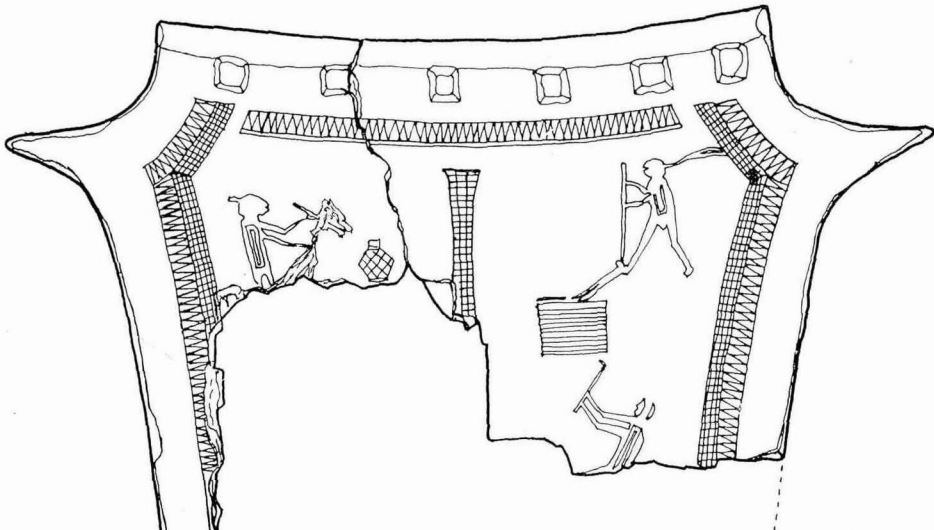
第一圖② 農耕文青銅器 後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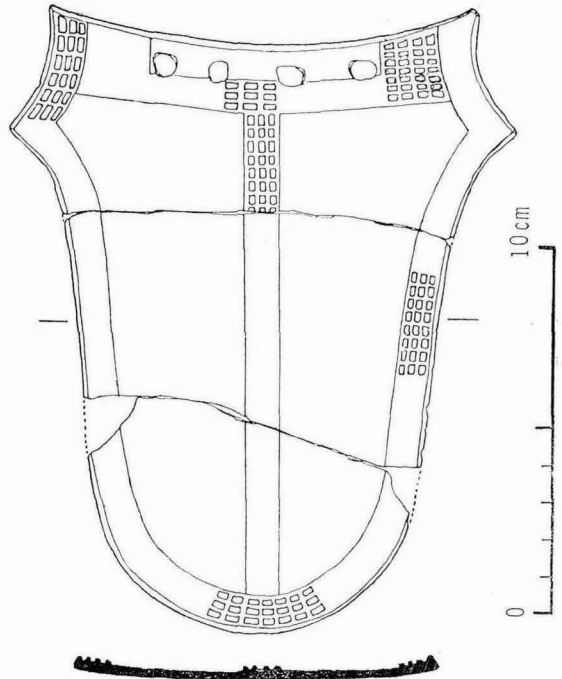
第二圖 拓本(上……前面, 下……後面)



0 5 cm



第三圖 實測圖(上……前面, 下……後面)



第四圖 槐亭洞出土 防牌形青銅器

文樣은 前·後兩面을 區別하여 說明하는 것이 좋겠다.

前 面

周緣에서 約 1cm 안쪽에 七~八條의 細線文帶를 青銅器의 윤곽과 平行 되게 돌렸는데, 대체로 一·五cm의 간격을 두고 三~四條의 單線이 直 角으로 꺾여서 內外線의 位置를 바꾸었다. 이러한 線文은 雷文의 變形 이 아닌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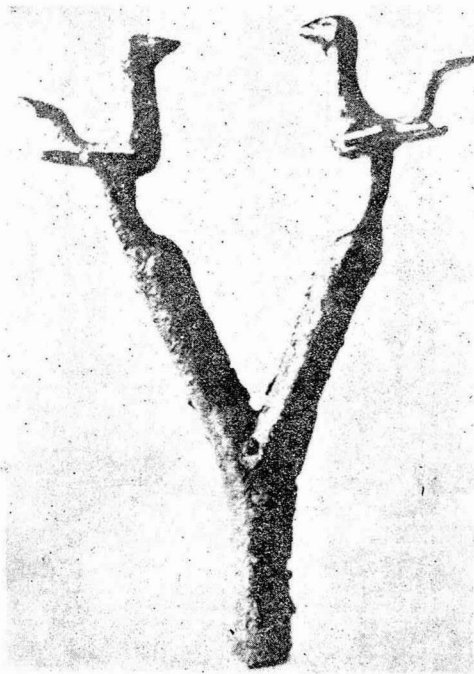
中央에는 垂直으로 格子文을 내려서 細線文帶를 돌린 內部가 二區로 分割되었다.

左側區間 下部에는 半圓形의 鈕가 있고, 이 鈕에는 絡繩形의 環이 달 려 있는데 鈕나 環이 槐亭洞에서 出土된 劍把形銅器에 달린 것과 너무나 흡사하여 同一人이 製作한 것 같은 감이 든다. 右側區間에도 이와 똑 같 은 鈕와 環이 있었을 것이나 모두 缺失되었다.

左·右兩區의 各 中央에는 Y字形의 線刻 끝에 몸에 斑點이 찍힌 두마리 새의 새가 각각 마주 보고 앉아 있다. 左側區間의 彫刻은 完全하게 남아 있으나, 右側區間에서는 한마리의 새의 下半과 Y字形 線刻이 缺失되었 다. 左側區間에서 보면 Y字形 線刻의 끝이 外反하였는데, 새들은 바로 外反된 部分에 앉아 있는 것으로 보아 Y字形의 文樣은 나무가지를 表 現한 것 같다.

斑點이 찍힌 새가 무슨 종류의 새인지는 判別키 어려우나 꼬리와 발 이 比較的 길다.

이와 같은 文樣을 보고 우선 연상되는 것은 內蒙古 綏遠青銅器에 보 이는 鳥飾竿頭인 것이다(제五圖). Y字形의 이 青銅器는 장대 끝에 끼 우게 되어 있는데 두마리의 새가 마주 보고 앉아 있다. 이와 비슷한 青銅



第五圖 鳥飾竿頭

器는 南露西亞의 「알렉산드로폴」에서도 出土된 바 있다. 이것은 세마 리의 새가 全部 같은 方向으로 앉아 있으며 새밑에는 방울이 하나씩 달 려 있었다.

以上과 같은 綏遠이나 南露西亞의 出土品은 새의 造形彫刻인데 반하

여 農耕文靑銅器의 것은 陰刻으로 된 것이라든 짐에서 差異가 있으나 前者는 장대끝에 끼웠고 後者는 어디에나 懸垂하였다든 것은 어딘가 一脈相通하는 바가 있을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이들 靑銅器의 機能이나 用途面에 共通點이 있을 것 같다.

後 面

左·右二區로 面을 分割한 것은 前面의 경우와 같으나, 文樣에 있어서는 상당한 差異가 있다.

周圍에는 鋸齒文과 格子文의 複合文帶를 돌렸는데, 上部만은 格子文이 없고 鋸齒文 뿐이다. 左·右區間을 가르는 中央의 文樣帶는 前面과 꼭 같다. 이와 같이 複合文帶를 돌린 것은 槐亭洞의 劍把形 銅器에서도 보았다.

左側區間에는 下半身이 缺失된 사람이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으며, 그 앞에는 斜格子文의 아가리가 좁은 향아리가 놓여 있다. 사람의 얼굴은 細部的인 表現이 省略되었고 입의 윤곽만이 뚜렷하며, 머리 뒤에는 가늘게 상투 같은 것이 달려 있는데 머리카락인지 장식인지 분간할 수 없다.

왼손 끝에는 細線이 약간 남아 있는데 손에 무엇을 잡고 있는 것 같으나 缺損이 심하여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왼손에 잡혀 있는 線이 앞에 놓인 향아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 없다.

右側區間에는 사람이 두 손으로 삼자루를 잡고, 한쪽 발은 삼을 밟고 있는 모습인데 삼날이 길고 끝이 돌로 갈라져 있다. 삼자루와 날의 角度나 삼날이 길게 돌로 갈라진 모습은 「파비」(第六圖)와 꼭 같은 인상을 준다.

그 밑에는 十條의 橫線을 方形으로 그었는데 이는 발고랑을 表示한 것인데 「파비」끝에는 발고랑의 一部分이 表現되어 있어서 발가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한층 「리얼」하게 나타내고 있다.

사람의 表現은 右側區間 것과 유사하나, 뒷머리에 달린 것이 아주 길고 끝에 가서는 돌로 갈라졌다. 그리고 두다리 사이에는 男根이 三角形

으로 表現되어 있어서 이 발가는 사람은 男子임에 틀림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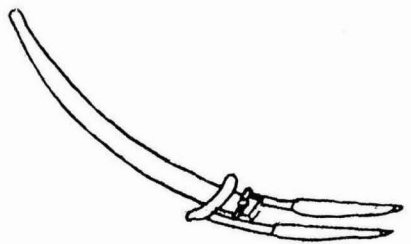
발고랑 밑에는 또 한사람이 두 손으로 팽이를 치켜들고 있다. 이 사람은 上半身만이 남아 있다. 그 表現方法은 위의 두사람과 비슷하나 뒷머리에 달린 것이 없다. 그리고 얼굴은 前面의 「프로필」만이 보이고 中間部分은 없으며 뒷머리 부분은 半月形의 작은 점으로 表示하였다.

以上과 같은 後面의 文樣은 그 內容으로 보아 農耕하는 場面을 比較的 寫實的으로 表現하고 있다.

이제까지 이 靑銅器의 形狀과 文樣을 살펴 보았다. 앞서言及한 바와 같이 이 靑銅器는 매우 精巧하게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靑銅器의 鑄造方法에 대해서도 간단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石製 靑銅器鑄范이 많이出土된 바 있다. 그 代表的인 例子가 全羅南道 靈岩에서出土되어 崇田大學 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는 一括遺物인데, 여기에는 銅劍·銅鉞·銅鏡·銅匕·銅鏹 그리고 釣針 등 그種類가 매우 다채롭다. 이와 같은 石製鑄范은 物體의 半面만이 새겨진 두개의 鑄范을 接合하여 鑄造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鑄范의 接合線이 鑄造後에도 남아 있다. 銅劍·銅鉞·銅戈의 경우, 刃部는 鑄造後에 날을 세우기 위하여 갈기 때문에 接合線이 남아 있지 않으나 基部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

이 農耕文靑銅器의 경우는 接合線의 흔적이 전혀 안보일 뿐만아니라, 두께가 불과 一·五mm 밖에 되지 않으므로 接合式 石製鑄范으로는 鑄造가 不可能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文樣을 보아도 그 線이 매우 섬세하고 에리하여 石製鑄范으로는 表現키 어렵다. 그러므로 이와같이 形態나 文樣이 精巧한 靑銅器들은 蠟蠟型을 使用했다고 본다.



第六圖 파비, 李春寧 「韓國農業技術史」에서 轉載

蜜蠟은 무르기 때문에 取扱하기가 쉽고 文樣도 섬세하게 表現할 수가 있다. 蜜蠟에 약간의 蝕진을 섞으면 粘着性이 強해지며, 날씨가 추워서 굳어졌을 때에는 기름을 섞으면 물러져서 靨을 만들기가 容易하다고 한다.④

蜜蠟型으로 鑄造하는 경우에는, 먼저 蜜蠟으로 製作코자 하는 銅器와 똑같은 모양을 만든 다음, 그 表面에 보드럽고 고운 흙가루를 물에 타서 바른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흙을 두텁게 덮어 쪄준다. 이럴때 흙이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補強材를 섞는다. 이와같이 한다 음 약간의 熱을 加하면 蜜蠟은 녹아서 빠져나오게 된다. 蜜蠟은 보통 섭씨 七〇度 정도에서 溶解되기 때문에 쉽게 빼어 낼 수가 있다. 이러한 過程이 끝난 다음에 靑銅鑄液을 注入하여 蜜蠟型과 똑같은 形態의 靑銅器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農耕靑銅器의 경우 두께가 매우 얇기 때문에 鑄液을 注入할 때 發生하는 氣泡으로 因하여 氣泡가 생긴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氣泡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을 것이나 現存하는 部分에는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下半의 缺失된 곳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蜜蠟型은 그 自體가 成型을 위한 鎔范이 아니라 단지 媒介의 役割을 하는 型이기 때문에 단 一回의 鑄造밖에는 할 수 없는 弱點이 있다.

農耕靑銅器와 더불어 蜜蠟型으로 鑄造된 좋은 예는 槐亭洞의 劍把形靑銅器이다. 槐亭洞에서는 세계의 劍把形靑銅器가 出土되었는데 세계 각각 크거나 文樣에 있어서 약간의 差異가 있다.⑤

이러한 事實은 이것들이 蜜蠟型에 의해서 鑄造되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鈕는 同時에 鑄造되었으나, 絡繩形의 環은 鑄造後에 부친 것이다. 環에는 鎔接을 한 흔적이 보이는데, 鎔接方法 또한 精巧하여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분간하기 힘들다.

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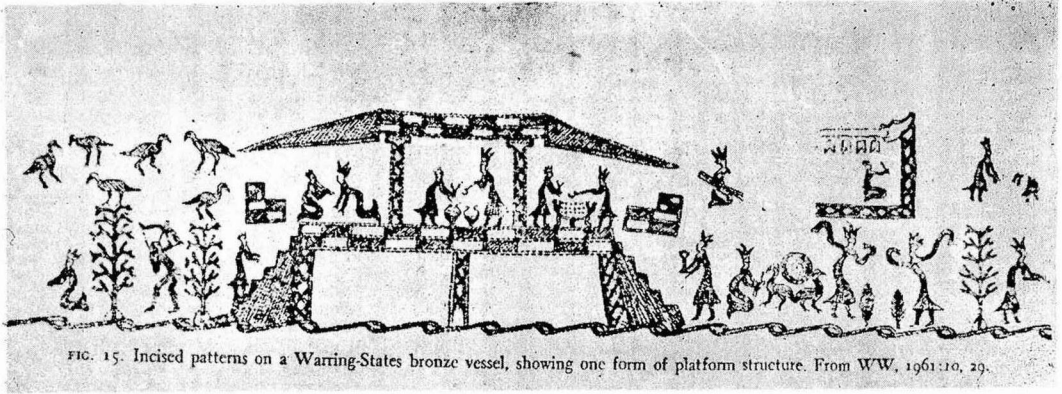
다음에 이 靑銅器의 文樣들을 內外關係資料 및 現存하는 民俗資料 등과 比較檢討하여 當時 社會人의 宗教的 觀念에 대한 筆者의 見解를 밝혀 보고자 한다. 먼저 表面에 彫刻한 새에 대해서 檢討해 보기로 하겠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靑銅器片은 그 形狀으로 보아 儀器임에 틀림 없다. 그렇다면 儀式에 있어서의 새의 登場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現在에도 히마라야山脈을 中心으로 하여 티베트나 네팔에서 鳥葬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事實이다. 이와 같이 屍體를 새가 먹고 그로 하여금 靈魂을 他界로 運搬한다는 方法은 아닐지라도 어떤 形態로든 間에 死後의 靈을 새를 通하여 天界로 보내려고 한 努力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다.

이 靑銅器와 비슷한 예인 日本의 彌生時代 遺蹟에서 多分히 宗教的인 意味를 內包하고 있는 새들이 發見된 例가 있다.

大阪府和泉市 池上遺蹟에서는 五點의 鳥形木彫가 發見되었다.⑥ 이 木鳥는 木彫에 구멍이 뚫여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報告者들은 장대 끝에 끼웠던 것으로 보았고, 이는 宗教的인 遺物이라 하였다. 이 木彫와 같이 男性性器形木彫도 出土되었는데 그 彫刻이 매우 寫實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뚜렷한 男根形의 遺物이 出土된 例가 없으나 이러한 男根에 대한 崇拜思想은 「그리스」·「로마」·「印度」等地에서 매우 盛行하였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며, 中國에서도 秦漢時代로 推定되는 靑銅器 男根이 있다. 또한 中國에서는 「祖」字가 男根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說이 있는데 이러한 男根形의 遺物들이 祖上崇拜思想과도 關連이 있을 것 같다.

같은 彌生時代 遺蹟에서는 死者가 「사다새」를 가슴에 안고 있는 것이 發見된 바 있다.⑦ 이는 死者의 靈을 天界로 運搬하는 이른바 「죽음의 새」 일 것이다.

三國志魏志東夷傳辰韓條에도 死者를 보낼 때 큰 새털을 넣어서 그 靈



第七圖 戰國時代 青銅器文樣(KWANG-CHIH CHANG, 「Archaeology of Ancient China」에서轉載)

이 날아가게 한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 우리나라에서의考古學的인發見은 없으나死者에 대한觀念이日本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또한日本뿐만 아니라中國에서도 이와 유사한遺物이發見된例가 있다.

戰國時代 青銅器에 儀式을 거행하는場面을 彫刻한 것이 있다(第七圖)。中央에 樓閣이 있고 樂器를 연주하며 춤을 추는 사람도 보이는데 圓편의 나무 가지위에 한 마리씩의 새가 올라 앉아 있으며 그 위에도 네마리의 새가 있다。樓閣 위 圓편에는 새를 向하여 절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무와 나무사이에는 머리 모양이나 옷이 전혀 다른 차림의 한 사람이 새에게 화살을 겨냥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이러한 儀式에 새가登場한다는 것이 매우 重要한 意味를 던져 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이와 같이 宗教的 意味를 內包한 青銅器는 河南洛陽

陽金村의 戰國時代 韓君墓에서 出土된 胡風人物立像(第八圖)과 輝縣趙固의 戰國時代 魏墓에서 出土된 鏡鑑文樣에도 보인다。

우리나라나, 中國, 日本의 例들이 儀式에 있어서 새가 나타나고 있음은 金屬器의 發達로 本格的인 農耕에 접어들어 社會에 있어서의 共通性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注目할만한 사실이라 하겠다。

以上과 같은 몇가지 例에서 본 바와 같이 葬禮를 지낼 때나 祭祀를 할 때 새가登場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새가 天界와 現世를 連絡지어주는 靈物이었음을 暗示해 주고 있다。그러면 새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靈物이 되었을까 하는 問題가 제기된다。여기 대해서 筆者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려 보았다。

自然을 헤메며 먹을 것을 구하여야만 되었던 採集經濟時代, 즉 우리나라의 경우 櫛文土器時代의 人間은 自然의 巨大한 힘앞에서는 보잘 것 없이 미약했을 것이다。그래서 그들은 自然의 모든 事物에는 精靈이 깃



第八圖 胡風人物立像

들어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애니미즘」의 인 信仰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人間이 自然을 改造하고 農業에 의해서 生活을 영위하는 生産經濟體制로 들어서면서부터는 四季節의 順調로운 變化를 支配하여 豐年이 들게 하고, 子孫을 보호하고 多産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精靈이 아니라 祖上의 靈으로 變했을 것이며 祖靈과 人間과의 連絡을 새가 한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人間の 靈魂은 새가 되어 祖靈의 世界로 가고 祖靈은 새가 되어 現世로 나타났다. 神을 祭祀하는 特殊한 能力을 가진 사람은 人間이 만든 새를 받들고 祖靈을 맞이 하였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靈物로서의 새는 當時의 信仰生活과는 不可分の 關係가 있었을 것이다.

한편 「샤마니즘」에 있어서도 이러한 새가 많이 登場한다. 시베리아諸種族에 있어서의 새가 「샤-만」의 意志에 따르면 그의 모든 命을 遂行하는 使者로 나타난다.① 그런데 「샤-만」은 神과 人間의 中間에서 媒介役割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새에 대한 觀念도 앞서 말及한 바와 다름이 없다. 또한 「통그스」族의 「샤-만」무덤에 네 마리의 木鳥를 세워 놓은 例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天界와 現世의 媒介役을 새가 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現存하는 民俗에 「숫대」라는 것이 있다. 지역에 따라 「침대」, 「수살대」라고도 불리우기도 한다.

이것은 二—三十尺 높은 장대위에 橫木을 걸치고 그위에 木鳥를 한 마리 내지 세 마리 올려 놓는다. 이 「숫대」가 서 있는 밑에는 보통 장승이 놓여 있다. 民俗學者들 調査에 따르면 이 「숫대」위에 있는 새는 部落에 侵入하는 雜鬼를 격퇴하는 役割을 한다고 한다. 즉 이 새가 洞口에서 雜鬼를 發見하여 그 밑에 있는 「장승」에게 알리면 이 「장승」이 雜鬼를 물리친다는 것이다.

이 「숫대」에 대한 信仰은 원래 祖靈의 媒介體로서의 새에 대한 崇拜

思想이었을 것이나, 후에 「장승」과 결부되어 保護神 같은 役割을 하게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後述하겠지만 이 「숫대」가 三國志 魏志 東夷傳에 나오는 蘇塗와의 連絡이 가능하면 더욱 더 그럴 가능성이 짙다.

이상言及한 바와 같이 이 農耕文靑銅器 前面에 조각된 새는 宗教的인 儀式에 있어서 天界와 現世를 연결하는 役割을 하기 위해서 儀式 때 마다 登場하는 새로 해석된다.

다음 後面의 文樣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미言及한 바와 같이 오른쪽에서 발을 잡고 있는 것은 男子가 틀림없다. 그런데 발가리하는 機具가 濟州道 民俗調査에서 發見된 「파비」와 꼭 같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 하다.

우리나라와 같은 耨耨단계에 들어서 있었던 말을 말해주는 古代文化研究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 주는 좋은 資料라 하겠다.

「파비」로 발가는 사람 밑에는 팽이를 높이 추켜들고 있는 사람이 보인다.

이것은 當時 農耕이 耨耨단계에 들어서 있었던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상당히 發達된 農耕技術을 가진 本格的인 農耕社會가 形成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다.

왼쪽의 사람이 들고 있는 것은 마멸이 심하여 무엇인지 자세히 알 도리가 없음을 이미言及한 바와 같다. 그러나 그 사람의 손이 앞에 놓인 향아리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무엇인가 향아리에 담고 있는 場面을 表現한 것 같다.

이것은 여러면으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筆者는 秋收한 곡식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본다.

옆에 사람은 발을 잡고 있고 한쪽 사람은 가을에 거둬들인 곡식을 저장하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한다. 이 사람은 뒷머리가 짧은 점으로 보아 女性으로 추측되는데 이는 오른쪽 耕作하는 男子의 머리와 對照적으로 짧게 表現했다는 점에서 뒷머리의 長短이 바로 性的의 差異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와 같은 筆者의 해석이 許容된다면 後面의 文樣은 男女가 각각 春耕과 秋收를 하고 있는 場面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春耕과 秋收에 祖靈을 모시는 祭祀를 했다는 해석이 되는 것이다.

以上과 같이 前·後面의 文樣에 대한 해석을 내렸을 때 한 가지 重要な 點을 歷史記錄에서 發見할 수가 있다.

三國志 魏志 東夷傳 馬韓條에 다음과 같은 記錄이 있다.

「常以五月下種訖，祭鬼神，羣聚歌舞，飲酒晝夜無休。其舞，數十人俱起相隨，踏地低昂，手足相應，節奏有似舞，十月農功畢，亦復如之。」

信鬼神，國邑各立一人祭天神，名之天君。又諸國各有別邑，名之爲蘇塗。立大木，懸鈴鼓，事鬼神。諸亡逃至其中，皆不還之，好作賦。其立蘇塗之義，有似浮屠，而所行善惡有異。」

이 記錄에 따르면 馬韓에서는 五月에 下種이 끝났을 때와 十月에 秋收後에는 神에게 祭祀하고 群聚歌舞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後面의 文樣은 다른 아닌 祭祀지내는 時期를 表現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나오는 蘇塗에 관한 記錄은 지금까지 史家들 間에 論難이 되어온 句節이다.

즉 蘇塗가 「아시람(Assim)」과 같은 遁避所로 해석되기도 하고, 蘇塗 그 自體가 「숫대」를 말한다는 說도 있다. 筆者는 이 두 說中에서 어느 한 說을 따르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석되던지 간에 한 가지 共通되는 점이 있다는 것이다. 蘇塗가 바로 「숫대」라고 할 때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시람」과 같은 遁避所로 해석된다 해도 이 「아시람」속에서 立大木、懸鈴鼓하여 神을 모셨던 것이 된다.

換言하면 蘇塗가 大木 그 自體를 意味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蘇塗속에 大木이 서 있었거나 간에 祭祀를 할 때 大木을 세워 놓고 거기에 鈴·鼓를 매어 달았던 것만은 分明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다음과 같은 매우 重要的 事實을 發見할

수가 있다. 즉 이 農耕文靑銅器의 前面에는 祭祀지내는 時期를 表示하였고, 後面에는 神을 부르는 세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이야말로 東夷傳 馬韓條의 記錄과 같이 春秋로 祭祀할 때 大木에 懸垂하였던 儀器로 생각 된다는 것이다.

四

以上과 같이 이 農耕文靑銅器가 內包하고 있는 여러 가지 問題點을 考察해본 結論은 다음과 같다.

첫째, 鳥節靑銅器가 南露西亞·內蒙古·北中國·韓國 그리고 日本에 까지 分布되어 있는데, 이는 세에 대한 信仰의 流入過程을 말해주는 것이며 이른바 「스키타이」文化的 傳播經路와도 一致한다.

둘째, 우리나라 靑銅器文化人들의 鑄造技術이 상당히 發達했었다는 것이다.

農耕文靑銅器를 위치하여 槐亭洞의 劍把形靑銅器나 和順의 八珠鈴 및 雙頭鈴 등이 蜜蠟型에 의해서 매우 섬세하게 鑄造되었으며, 이렇게 섬세한 文樣의 靑銅器를 鑄造하기 爲하여는 良質의 靑銅을 使用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冶金技術 또한 상당한 水準에 이르고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鑄造方法은 鑄銅工藝上의 一大進歩를 말하는 것이며, 또한 이것은 生産過程에 있어서의 勞動의 分工을 促進하는 要素가 되었을 것이다.

셋째, 後面의 文樣을 通하여 이미 本格的인 農耕社會가 形成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특히 農業技術面에 있어서는 「마비」로 밭을 가는 耨耕場面도 보이거나 耨耨耨를 使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耨耨耨로 넘어선 段階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넷째, 前面의 鳥文은 祭를 올릴 때 神을 부르는 것이며, 後面은 祭를 지내는 時期를 表示하고 있는데, 이와같이 해석해 볼 때 三國志 魏志 東夷傳 馬韓條의 蘇塗와 關連된 記錄과 너무나도 一致함은 앞으로의 韓國

考古學 研究을 爲해서 매우 重要な 問題點을 던져주고 있다.

끝으로 이 青銅器와 歷史記錄을 比較考察해 보는 過程에서 다음과 같은 問題가 남아 있음을 附記하여 주고자 한다.

먼저, 아직 充分한 考古學的 資料가 蒐集되어 있지 않은 現段階에서 여기 紹介한 것 같이 一個 青銅器破片을 가지고 직접 歷史記錄과 결부시켜서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더욱이 陳壽가 三國志를 撰한 것이 三世記末인데 農耕文青銅器는 이보다 五·六世紀前의 遺物이다.

여기 대한 筆者의 見解는 다음과 같다. 文獻記錄을 通해서 考古學的 遺物의 해석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臆論한 試圖라는 것은 自認하는 바이나, 우리의 上古史의 究明을 爲하여는 考古學과 文獻史學이 연계까지나 平行線만을 달리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실혹 이러한 過程에서 약간의 오류를 범하는 일이 있을찌라도 兩者의 比較檢討作業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만이 上古史 究明의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다음 記錄과 遺物의 時代 差異에 대하여는, 陳壽가 三國志를 撰할 때 반드시 當時의 事情만을 記錄하였다고는 보기 힘들다. 그렇다고 아주 옛 일들을 記錄하였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파비」와 같이 오래된 農耕具가 오늘날 날까지 傳해오고 있다는가 새의 信仰이 지금도 「숫대」로서 남아 있다는 事實로 미루어 보아 실혹 陳壽가 三世記末 當時의 事情을 記錄했다고 하여도 土俗의 信仰面에 있어서는 別로 다를 것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推論이 容納될는지 關係學者들의 叱正을 바라 마지 않는다.

註

① 「青銅遺物圖錄」 國立博物館學術資料 第一輯, 一九六八, 서울, 圖版四~七

② 大田槐亭洞의 銅劍은 節帶 밑에 등남이 없는 形式인데, 尹武炳氏는 紀元前 三世紀로 보았고 「韓國青銅劍의 型式分類」 震檀學報二九·三十合輯 筆者는 紀元前 四世紀로 推定한 바 있다. 「价川龍興里出土青銅劍과 伴出遺物」 考古學第一輯

③ 水野清一, 江上波夫 「內蒙古, 長城地帶(綏遠青銅器篇)」 一九三七, 京都, 插圖 第三十六

④ 小林行雄 「古代의 技術」 一九六五, 東京, 二五四頁

⑤ 國立博物館「前揭書」 解說 七頁

⑥ 第二阪和國道內遺蹟調查會 「池上·四ッ池」 一九七〇, 大阪, 圖版四一, 四二

⑦ 第二阪和國道內遺蹟調查會 「前揭書」 本文 二八頁

⑧ 日本 山口縣 豐北町 土井ヶ淵의 彌生前期 遺蹟에서 發見되었는데, 유감스럽게도 原報告를 引用치 못하고 國分直一, 岡本太郎編 「大地と呪術」 (一九六九, 東京) 圖版三三 및 本文二四一頁를 参照하였음.

⑨ 三國志 魏志 東夷傳 辰韓條 「辰韓以大鳥羽送死, 其意慾死者飛揚」

⑩ 中國科學院 考古研究所編, 杉村勇造譯 「新中國의 考古收穫」 一九六三, 東京, 一一一頁, 插圖三一,

⑪ G. Nioradze 著, 牧野弘一譯 「シベリヤ諸民族의 シヤマン教」 一九四三, 東京 九八頁.

⑫ Edward A. Armstrong 「The Folklore of Bird」 一九五九, London 一〇頁, 插圖九. G. Nioradze 「前揭書」 圖版 一一三

⑬ 村山智順 「釋尊, 祈雨, 安宅」 朝鮮總督府 調查資料 第四五輯, 一九三八, 서울, 一六七, 一六七頁.

⑭ 震檀學會編 「韓國史(古代篇)」 三〇四頁의 李丙熾氏는 蘇塗가 숫대라기 보다는 祭祀地域을 말하는 것이며, 西洋의 Asylum(遁避所)와 같은 것이라고 하였고, 한편 孫晋泰氏는 「立大木」과 「立蘇塗」가 重複되어 있다는 점에서 魏志는 前代史料를 編纂할 때 「又諸國有別邑, 立大木, 名之蘇塗」를 잘못 옮긴 것이며 따라서 蘇塗는 立木의 뜻이며 別邑은 아니라고 하였다. 「蘇塗考」 (民俗學) 四의 四 및 五의 四. 村山正雄氏는 蘇塗가 立木이 아니라 別邑이라고 하였다. 「魏志東夷傳に見える蘇塗の 一解釋」(朝鮮學報) 第九輯